우리 경제와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70년대 초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확장과 미국의 안보지원태세 약화는 방위산업 건설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중화학공업 지향 전략과 맞물려 방위산업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의 방위산업은 당초 20~3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국산장비의 대치, 조달을 '80년대 중반에 완료하였으며, 기간중 정밀기계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기폭제가 되는등 국내 민수산업 발전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이와함께 고급연구 및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일선에 배출하였으며,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등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은 물론, 해외도입무기의 국내생산 획득으로 외화절감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東西간의 화해무드에 편승하여 일부에서 군비축소나 방위산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수 없으며, 방위산업은 통일이후를 포함한 국가생존 전략차원에서의 준비로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군사과학의 절대적인 우위가 최대의 자산이며, 소련에 대한 양적인 열세를 절적인 우세로 상쇄한다는 전략하에 국방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實例로 1985년의 경우 미국 전체 연구개발비 지출의 30%를 국방부문에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1960년 이후 연방정부 연구개발비 지출의 50%이상을 국방부문에 투입하고 있으며, 1985년에는 68%를 국방부문에 투입하였습니다. 特記할만한 사실은 美 국방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연구개발지출비용의 대부분(약70%)이 민간기업체로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는 국가예산 가운데 복지·후생비의 비율을 확대하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방예산은 실질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연구개발투자비의 확대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의 2%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浮上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할때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의 基底이자 기술주권시대의 핵심인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자국산 항공기 개발에서 외국의 무기체계보다 4~5배나 더 비싼 값을 주고 정부가 구입해줌으로써, 국내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북한보다 다소 우위에 설 정도의 무기체계 개발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방산업체의 축적된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위산업의 국가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고, 자주국방 건설과 중화학공업등 첨단산업 발전에의 기여 등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파급효과를 범국가적으로 극대화할수 있는 발전전략이 총체적으로 수립되어져야 하며, 방위산업과 民需산업간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할수 있는 정책총괄부서의 신설이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우리의 방위산업도 국내소요충족 위주에서 해외진출을 통한 수요창출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을 기초로 하여 장차 통일이후를 대비한 자주 국방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중화학공업등 국가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연구개발비 지출규모 및 財源비율(1960－1985) (자료 : Program Manager, March－April 1988, p.9)

年	미국전체 연구개발비 (1972년도 불변가)	연방 정부 지출 비율(%)			전체민간부문재원 지출 전체(%)
		국방부문	우주부문	민간부문	
1960	19,634(단위 : 백만불)	52	3	9	35
1965	26,898	33	21	11	35
1970	28,613	33	10	14	43
1975	28,153	26	8	17	49
1980	35,122	22	7	18	53
1985	45,863	30	6	11	53